



打 이거즈

1위 독주 속도 낸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막강 화력을 앞세워 1위 독주에 속도를 낸다.

KIA는 지난주 키움, LG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서 4승 2패를 기록했다.

키움 안방에서 정해영 최연소 100세이브, 김도영 첫 '월간 10-10', 양현종 170승, 구단 최소 경기 20승 기록 등을 작성하며 스윙승을 거둔 KIA는 주말 잠실에서 LG와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대결을 펼쳤다.

3경기에서 모두 매진이 기록됐고, 만원 관중 앞에서 두 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접전을 벌였다.

광주에서 이뤄진 첫 만남에서는 KIA가 LG를 상대로 스윙승을 거뒀지만 잠실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김태균의 아쉬운 수비가 나오는 등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연패, 28일에도 앞선 패배와 비슷한 흐름으로 경기가 흘러갔다.

하지만 스윙패 위기에서 KIA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재역전승을 만들었다. 5-7로 뒤진 7회초 KIA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

선두타자 김선빈의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루, 잠실 원정 관중석이 술렁거렸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나성범이 마침내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이다.

뜨거운 환호 속에 타석에 선 나성범은 초구 헛스윙 뒤 파울을 기록하면서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다.

하지만 한방이면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나성범을 마주한 상대가 심적으로는 더 불리했다. 연달아 볼 3개가 들어오면서 풀카운트가 됐고, 나성범은 파울 이후 7구째 공을 지켜보면서

안방서 9위 KT와 '화력' vs '화력'전 예고...8위 한화도 경계대상 임기영 복귀 늦어지고 이의리도 부재... '부상 신음' 마운드 아쉬워

볼넷을 얻어냈다.

나성범은 27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3타석을 소화한 뒤 바로 1군에 콜업됐다.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타자인 만큼 KIA 타선의 힘이 더 커졌다.

나성범의 볼넷 다음 장면에서도 KIA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사 1·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김도영이었다.

김도영은 지난 15일 키움전에서 김선기를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KBO리그 사상 첫 '월간 10홈런-10도루' 주인공이 됐다. 뜨거운 타격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도영이었던 만큼 시원한 타격을 기대했던 순간, 김도영은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

공은 절묘하게 3루 선상을 타고 흘렀고 김도영을 잡는 걸 포기한 포수 박동원은 3루로 송구했다. 예상치 못했던 '홈런타자'의 번트에 악수구가 나오면서 3루에 있던 김선빈이 홈에 들어왔다.

나성범으로 상대를 혼든 KIA는 김도영으로 판을 뒤집었다. 나성범과 김도영의 공세에 흔들린 LG는 이후에도 2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KIA에 승리를 내줬다.

김도영은 무시무시한 타구 스피드로 담장을 넘기는 힘과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스피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전으로 꾸준하게 경기에서 나서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도영은 경기를 혼드는 특급 전력이었다.

김도영의 활약에 나성범의 복귀까지 이뤄지면서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배가 됐다.

더 목격해진 타선을 앞세운 KIA는 홈 6연전에서 승수 쌓기에 나선다. 주중에는 9위 KT를 만나고, 주말에는 8위 한화와의 대결이 예정됐다.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지만 KT의 흐름을 조심해야 한다. KT는 지난주 4승 2패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타선의 힘이 좋다.

장성우가 0.533로 주간 타율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개의 홈런으로 7타점도 만들었다. 강백호도 앞선 6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는 등 3개의 홈런을 더해 0.458의 타율을 기록했다. 황재균도 지난주 6경기에서 0.444의 타율을 찍는 등 KIA와 KT는 주중 뜨거운 화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막강 화력에도 KIA의 고민은 있다. 타선과 달리 마운드에서는 '부상 공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의리가 팔꿈치 부상으로 빠진 뒤 대체 선발로 3경기가 진행됐지만, 이 경기에서 모두 패배가 기록됐다.

가장 먼저 복귀가 예상됐던 '전전후 잠수함' 임기영의 공백도 아쉽다.

좌측 내복사근 부상으로 지난 1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임기영은 19일 NC와의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하면서 복귀를 눈앞에 둔 것 같았다. 하지만 임기영이 실전 과정에서 부상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복귀 준비 속도가 늦춰졌다.

타선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운드 보강이 KIA에 속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박지성과 어깨 나란히

PSG 리그1 우승 확정...한국인 네 번째 '빅리그 우승'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차세대 간판'으로 꼽히는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맞은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한국 축구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9일 2위 팀 AS 모나코가 올랭피크 리옹과 2023-20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패하면서 PSG의 우승이 확정됐다.

승점 58에 머문 모나코가 남은 3경기들 다 이겨도 현재 PSG의 승점 70을 넘지 못한다.

이로써 2018년 '17세 253일'의 나이로 발렌시아(스페인)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강인은 처음으로 리그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강인은 2018-2019시즌 발렌시아 소속으로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올 시즌 트로페 데 샤페용(프랑스 슈퍼컵)에서 두 차례 컵 대회 우승만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선수가 유럽 5대 빅 리그(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우승한 건 박지성(전북 테크니컬 디렉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이강인이 네 번째다.

박지성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1년에 우승했고, 독일 분

데스리가 뮌헨 소속이던 정우영은 2019년에 리그 정상에 올랐다.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맹활약해 팀에 뜻깊은 우승을 안겼다.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트로피까지 받은 김민재의 활약 덕에 나폴리는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의 2018-2019시즌 우승 당시 리그 1경기 출전에 그친 정우영을 제외하면, 주축으로 활약해 팀에 우승을 안긴 건 이강인이 세 번째라 봐야 한다.

이강인은 리그 19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경기, 쿠프 드 프랑스(컵대회) 2경기, 트로페 데 샤페용 1경기까지 총 30경기를 소화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전후로 6~7주가량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빅리그 명문 팀으로 등지를 옮긴 첫 시즌부터 제대로 자리 잡은 셈이다.

박지성, 김민재와 비교하면 이강인이 가장 어린 나이에 빅리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첫 우승 당시 박지성과 김민재는 26세였다. 이강인은 지금 이들보다 3살 어린 23세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이강인은 병역 문제도 해결했다. 앞으로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맞은 첫 시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사진은 이강인(왼쪽)이 김민재와 지난 3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 훈련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유럽 무대를 누비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일만 남았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뚝 2022-2023시즌 리그, 컵대회에서 6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올 시즌에는 4골 3어시스트로 공격포인트 총량 10골을 기록하며 모야네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도 아래, 고정된 포지션 없이 전방과 미드필더를 오가는 등 새 팀 적응에 집중한 여파다.

/연합뉴스

최경주, 기분좋은 4위 PGA 챔피언스 미쓰비시 일렉트릭 클래식 시즌 최고 성적

美프로풋볼 구영회와 동반 라운드

최경주가 미국 시니어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미쓰비시 일렉트릭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이번 시즌 최고 순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29일 미국 조지아주 델루스의 TPC 슈거로프(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연타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9연타파 207타를 적어냈다.

14연타파로 우승한 스티븐 에임스(캐나다)에 5타차 공동 4위를 차지한 최경주는 지난달 호그 클래식 공동 5위를 뛰어넘는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톱10 진입이기도 하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프로암에서 한국 출신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풋볼(NFL) 선수가 된 구영회(애틀랜타 펠컨스)와 동반 라운드를 했다.

구영회는 2017년 NFL LA 차저스에 입단,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 선수로는 처음으로 NFL에 입성했다. 이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키커로 뛰면서 2020년 NFL 필드골 성공 횟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둘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프로 스포츠 무대에서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최경주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멋진 선수로 거듭날 때까지 선수 생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최경주 프로를 보면서 자랐다. 한국

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구영회는 "평소 오프시즌에 골프를 즐겨 친다.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양용은은 공동 13위(5연타파 211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5연타파 67타를 때려 폴 브로더스트(잉글랜드), 더그 배런(미국)을 4타차로 따돌린 에임스는 60세 생일인 이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유해란, 아쉬운 3위 LPGA JM 이글 LA 챔피언십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우승을 향한 추격전을 펼쳤으나 무위에 그쳤다.

유해란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합계 6연타파 278타를 친 유해란은 우승한 해나 그린(호주-12연타파 272타)에 6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랐다. 9연타파 275타를 친 마야 스타르크(스웨덴)가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10번째 대회에서도 승전보를 전해 주지 못했다.

그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이 대회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하며 우승 상금 56만2500 달러(약 7억8000만원)를 받았다. 이

번 시즌에는 지난 2월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에 이은 두 번째 우승이다.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은 올해는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주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5위에 오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반에 버디 2개를 잡아 선두 그린을 1타차로 추격한 유해란은 11번 홀(파4)과 12번 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13번 홀(파5)과 14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선 유해란은 17번 홀(파4)에서 3파트로 보기를 하는 바람에 추격할 동력을 잃고 말았다.

/연합뉴스